

기관명	(국 문) 유럽공연예술회의 (영 문) IETM(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한자어) IETM		
소재지	브뤼셀	설립년도	1981년
기관소개	<p>IETM(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는 1981년 시작된 국제 비영리 공연예술 네트워크이다. 첫 모임 당시, 이탈리아 폴베리치 페스티벌(Polverigi Festival)에서 비공식 모임으로 시작했으나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 500개 이상의 기관과 개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IETM은 회원으로 등록되어있는 단체 혹은 개인들이 서로 공연작품의 교류 및 협업을 도모하고, 업무를 향상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정기총회를 유럽 내 도시들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4일 동안 25-30개의 세션 위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그 외, 현대공연예술에 관한 연구와 출판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p> <p>IETM은 2005년 현대공연예술의 다양한 네트워크 확장에 따라 오리지널 타이틀인 유럽공연예술회의(Informal European Theatre Meeting)를 국제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로 변경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IETM(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이다. 이러한 기관명 변경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을 넘어서 북미와 아시아까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기관의 영역을 넓히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p>		
교류물 위한 팀	<p>별기예회의 교류를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처해있는 정치적, 문화적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은, 어느 권역의 교류를 하던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특히 별기에는 오랜 종단의 역사속에서 형성된 문화별 그리고 언어별로 권역이 나눠지기(네덜란드어권인 플랑드르 지역과 프랑스어권인 왈롱지역)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현재 플랑드르 지역의 경제상황이 왈롱지역에 비해 월등히 앞서있기 때문에 플랑드르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의 교류가 더 용이하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p> <p>브뤼셀의 경우는 플랑드르 지역에 속해 있으나, 이중언어권으로 플랑드르, 왈롱과 더불어 또 하나의 지역정부를 이루고 있다. 이중언어권이긴 하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시민의 비중이 80%를 넘고 있어, 사실상 프랑스어권역 이라고 할 수 있다. 브뤼셀 내 위치하고 있는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예술 기관들은 각 언어권역별 정부로부터 지원을 각각 받고 있으며, 제작되는 작품들은 대체로 각 언어권역별로 투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와 같은 특별한 현지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교류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p> <p>IETM과의 교류사업 추진의 경우, 특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기관의 경우,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자체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결과물을 생성해내야 하는 국내 시스템과는 맞지 않다. 다만, 인력교류의 경우, IETM은 해외 타 기관과의 경험도 다수이며, 교류프로그램에 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시장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지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9년 2월부터 새로운 디렉터가 부임하므로, 기관의 사업방향성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시간을 두고 볼 일이다.</p>		